

호남권 최초 장수 가야역사관 착공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94억원 투입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 가야유적·유물 통해 지역 고대사 재정립 역할 수행

호남권 최초로 조성되는 장수 가야역사관이 장수군 장계면 건립부지에서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 장수군은 25일 장계면 장계리 527-30번지 일대 건립부지에서 장영수 군수, 장정복 군의회 부의장, 박용근 도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최초 가야역사관 착공식을 개최했다. 장수 가야역사관은 총사업비 94억원이 투입돼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1,955㎡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장수군은 25일 장계면 장계리 527-30번지 일대 건립부지에서 장영수 군수, 장정복 군의회 부의장, 박용근 도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최초 가야역사관 착공식을 개최했다.

역사관은 전시실과 오픈형 수장고, 체험실, 사무동 등이 들어선다. 특히 호남권 최초라는 타이틀 아래 백두대간을 넘어 서쪽 지역으로 진출한 가야의 역사·문화를 주제로 전시 테마가 구성되며, 3차원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와 호남권 가야문화를 테마로 한 전시실,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체험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행하는 등 지역의 문화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근의 군립도서관, 복합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이 함께 조성되어 명실상부한 장수군 최고의 복합문화단지로 탈바꿈 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 가야역사관은 천오백년 전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어 장수군에 가야의 흔적을 남긴 선조들

의 역사를 담은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동안 가려져 있던 장수가야 역사를 밝혀내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에는 국가 사적 제552호 동촌리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 북가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수가야 홍보관이 운영 중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사회적경제 공유센터’ 개소

7개 단체 입주... 공유경제 활성화 기대

진안군은 25일 사회적 경제 조직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경제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진안사회적경제 공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전춘성 군수, 군의원, 사회적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현판식을 가졌다.

공유센터는 마이산북부 진안마을 한 정식 2층에 위치하며 7개 사회적 단체가 입주한다. 입주 단체는 진안개마, 수음데미, 마이미디어협동조합, 살림과농업, 숲놀이터, 진안군산촌특화협의체, 진안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이다. 이번에 개소하는 공유센터는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 소비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되며 사회적 단체들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정보공유 및 회의, 서류 작업 등 공유경제의 시발점이 되어 앞으로 정보소통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공유센터 개소를 통해 진안군 공유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진안군 사회적 단체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구심점이 되는 공유센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사업 추진

진안군은 양봉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올해 5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군은 전북도와 협력하여 양봉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각종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봉산업은 화분 매개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경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양봉산물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타 축산업보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 투

입 등의 이점이 있어 최근 양봉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농산물 생산 기여 및 산림 생태계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지니고 있어 전문가들의 분석결과 꿀벌의 공익적 가치가 6조원에 달한다고 평가한다. 군은 높은 호응도를 보였던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고품질 양봉기재 사업, 벌꿀 자동채밀기,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벌꿀 보관통, 벌꿀 품질검사비 등을 꾸준히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벌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남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아카시, 백합, 헛개 등 밀원수 692ha를 조성하여 양봉농가의 소득 기반을 마련했다. 전춘성 군수는 “양봉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종 사업들을 통한 고품질의 꿀·양봉산물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게끔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4월 1일~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서

진안군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 보를 등록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자에게 연 120만원 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계(100만원/ha~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진안군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원활 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난 19일 국립농산물관리관리원 진안사무소와 자리를 마련하여 사전 협의를 했다. 농업인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시에는 ▲지급대상 농지 중 농가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 ▲경작하는 농지 중 ‘폐경 면적’ 신청하지 않기 ▲임차한 농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준비 ▲변경되는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 등을 신청 접수 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 중 폐경(묘지, 큰크리트, 폐기물, 정원 등) 면적을 신청하여, 6월말 등록이후 이행점검으로 부적격이 확인되면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직불금을 더 많이 수령할 목적으로 농지분할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및 등록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군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12월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농촌지도자 장수군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농촌지도자 장수군연합회는 지난 24일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장영수 군수, 김용문 군의장, 농촌지도자전라북도연합회 최규업 회장, 농촌지도자 회원 및 농업관련 유관기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24·25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취임식에서는 3년 동안 농촌지도자 장수군연합회 수장으로서의 농업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과 농촌지도자회의 위상을 높인 제24대 채동욱 회장의 노고를 치하했다. 새로 취임한 제25대 한동근 회장은 1992년도부터 농촌지도자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면회장과 군연합회 사무국장, 부회장을 역임하며 농촌지도자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제25대 회장단으로 선출된 홍보철·백인엽 부회장과 이장우 사무국장 과 함께 앞으로 3년동안 장수군 연합회를 이끌어간다. 한동근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농업 농촌의 뿌리인 우리 농촌지도자 장수군 연합회원간 단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장수농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 중앙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무주군이 봄철을 맞아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한다고 25일 밝혔다. 봄철 기간에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 사고를 테마로 선정해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해빙기 위험시설 또는 화재(산불포함), 취약계층(어린이·장애인·어르신)을 ‘신고테마’ 대상으로 정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군은 다음달 11일까지 신고 이벤트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접수받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모바일상품권도 지급한다. 신고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안전전문고 앰 또는 포털로 신고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25일 무주군청 내 전통문화의 집에서 2021년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결속을 다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10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장 및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으며, 2020년 활동 및 재정보고와 2021년 사업 및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총회를 개최한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정명임 회장은 “지난 해 어려운 상

황 속에서도 매순간 최선을 다해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여성단체의 큰 역할이다. 앞으로도 무주군을 위해 어려운 이웃들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 총회 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남대천 대청결 운동을 실시했으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와 가정폭력·성폭력·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